



보도 일시 <전매체> 7.20(목) 조간 보도 *통신/방송/인터넷은 배포 즉시	배포 일시 7.19(수) 오전 8시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스마트사후관리실	책임자 실 장 이찬형 (044-300-0980)
	담당자 주 임 이선진 (044-300-0984)
배포 부서 홍보전략팀	책임자 팀 장 김민철 (044-300-0720)
	담당자 책 임 정민규 (044-300-0721)

스마트공장 구축자금대출 총 5,000억원으로 확대 운영
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자금 예치 전담은행(하나은행)과 함께 현재 운용 중인 기업 전용 대출자금을 3년간('20.8월 ~ '23.12월) 총 4,000억에서 5,000억원으로 확대 운영
-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에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금리 우대 등으로 자금 부담 완화
- 그간('20.8월~'23.6월) 지원 결과, 총 523개사에 3,842억원 지원 성과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단장 안광현, 이하 추진단)은 7월 20일(목)부터 하나은행(은행장 이승열)과 함께 스마트공장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스마트공장 기업 전용 대출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.
 -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전담은행인 하나은행이 스마트공장 기업 전용 대출자금을 3개년('20년 8월 ~ '23년 12월) 동안 총 4,000억에서 5,000억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것이다.
 - 추진단과 하나은행은 이미 2022. 7. 19.일 3년간 총 3,000억원에서 총 4,000억원으로 스마트공장 기업 전용 대출자금을 1차 상향한 바 있으며, 이번 2차 상향을 통해 최소 40개 기업에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스마트공장 기업 전용 대출 상품은 추진단과 하나은행이 2020. 7. 28.(화) 일 협약을 맺어, 2020년 8월부터 스마트공장 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.

- 스마트공장사업 참여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1.8%p 낮은 우대금리로 관련 기업은 최대 40억원의 시설·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.

< 스마트공장 저리 자금대출 지원개요 >

우대상품명	• 하나은행 스마트공장 지원 자금대출
금리우대	• 기업당 은행 산출금리 기준 1.8%p 이상 감면
대출한도	• 기업당 운전자금 10억원, 시설자금 30억원 등 최대 40억원 이내 (은행이 산정한 범위내) • 3개년('20년 8월 ~ '23년 12월) 총 5,000억 한도내
대출기간	• 운전자금 1년 이내(최장 3년 범위내 1년 단위 연장 가능) • 시설자금 3년 이내
상환방법	•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
신청방법	•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신청('20. 8. 1. ~ '23. 12. 31.)

- 전담은행은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력,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제품의 홍보, 판로, 수출입, 투자유치 등 다양한 기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각종 수수료* 감면도 지원해왔다.

* 수입신용장 발행수수료 0.4%p 감면,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0.5%p 감면 등

□ 스마트공장 기업 전용 대출 상품 운용 결과, 2020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523개 기업이 3,842억원(619건)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. 2023년만 보았을 때 75개 기업이 549억원(95건)의 대출 지원을 받았다.

- 시설자금 대출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43개 기업이 1,619억원(157건)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.
- 운전자금 대출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13개 기업이 2,223억원(462건)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.

□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은 “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스마트공장에 관련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제조혁신·고도화 촉진을 위한 자금의 적기 공급과 기업의 투자부담 완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 고 밝혔다. 또한,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“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전용상품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스마트공장보급·확산사업에 앞장서겠다” 고 밝혔다.